

'제대로 일하고 꼭 필요한 곳에 돈 쓰는 시정'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 활동 마무리... 조지훈 전주시장, "인수위 성과 바탕으로 시정 대전환 더 치열하게 추진"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백서 전달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조지훈 전주시장이 인수위 활동 성과를 시민에게 보고하며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조 시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시민 주권·시민존중·시민동행이라는 3대 운영원칙 아래 활동한 인수위원회가 전주시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민선 9기 시정의 밑그림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며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토대로 전주시정의 대전환을 더욱 치열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107회의 업무보고와 16회의 간담회, 51회의 현장 방문, 8회의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또한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310건의 시민 의견을 접수했으며,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100개 사업에 대한 검토와 설계를 수행했다.

조 시장은 "2조 6000억 원이 넘는 예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백서 전달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조지훈 전주시장이 인수위 활동 성과를 시민에게 보고하며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20일 인수위 기간 시민 소통 플랫폼인 '열린전주 소통공간'에 제안된 총 310건 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한 3건에 대해 전주시장상을 수여했다.

산을 운영하고 62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전주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수하는 데 인수위원회의 탁월한 역량을 보여줬다"며 위원장과 위원, 전문위원,

실무진 등 모든 구성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그는 이번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민선 9기가 지향하는 "제대로 일하

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시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도시의 미래 발전을 준비하는 일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 것이 민선 9기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인수위원회가 남긴 백서와 정책 제안을 시정운영의 나침반으로 삼아 시민과 함께 더 강하고 지속가능한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출범 이후 시정 전반에 대한 현황 점검과 공약 검토,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수행해 왔으며, 이날 백서 전달을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모두 종료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에서 생산된 명품 복숭아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판매장터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 모습.

명품전주복숭아 명성 알린다

22일 전주 풍남문 광장서 '직거래 행사' 개최

전주에서 생산된 명품 복숭아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판매장터가 열린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은영)와 명품전주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는 오는 22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주복숭아의 품질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주시 농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제28회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직거래 행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풍남문 광장에서 펼쳐져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타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주복숭아의 맛을 적극 알리게 된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과종과 크기, 당도 등 규격·품질이 검증되고

맛과 향이 뛰어난 마도카, 대옥계, 그레이트점보 등 주력 품종의 전주복숭아를 만날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3kg 상자 기준으로 시중가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판매 부스는 이날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준비 물량이 초기에 소진될 경우 판매가 종료된다.

노은영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주복숭아의 명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상기후와 물가 상승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복숭아 농가를 돕기 위해 직거래 판매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28회째를 맞이하는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중인동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9월 개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은영)는 남부권 농업인의 노동력과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중인동 소재)'가 오는 9월 중 정식 운영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농업기계를 임대사업소 분소 조성으로 농업기계 수요가 많은 효자·산천·중인동 지역의 과수 농가의 영농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분소가 신축되면 중대형 기종 도입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새롭게 조성되는 분소를 단순한 임대 기능을 넘어 첨단 농업기술을 확산하는 지역 농업의 거점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영농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종 도입을 위해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향후 변화하는 농업환경을 선도할 수 있도록 피지컬 AI 등의 새로운 기술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재해 위험에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농기계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령농과 여성농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공급업체 위생 점검

전주시보건소, 2곳 대상
현장점검·안전교육 실시

전주시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임신부와 영·유아 등의 영양상태 개선을 돕는 영양플러스사업의 위생 상태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공급업체인 명동영농조합법인과 전주수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이번 점검에서 △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적재 상태 △저온창고 및 소분장소 위생 관리 △배송차량의 냉장온도, 청결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자와 배송원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및 친절 교육도 함께 실시하게 된다.

특히 식품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배송 인력과 함께 차량에 동승해 점검이 이뤄진다.

또한 시는 사업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보충식품의 수령 및 신선도 상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식품 보관 방법과 위생 수칙을 안내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주시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임신부와 영·유아 등의 영양상태 개선을 돕는 영양플러스사업의 위생상태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와 관련 영양플러스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4인 가구 소득 인정액 519만5790원 이하) 중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임신·출산·수유부와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 지원과 맞춤형 영양평가·영양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영양상태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영양상태에 따라 조제분유와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닭가슴살 등 11종의 보충식품 중 해당 패키지를 매월 제공한다. 또, 편식과 빈혈, 임신성

질환(당뇨병, 고혈압) 등 영양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매월 대상자별 맞춤형 영양교육과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산모수첩(임신부의 경우)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 주소지에 따라 전주시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또는 덕진건강증진센터 영양상담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063-281-6268)과 덕진보건소 모자건강팀(063-281-8591)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11개소 신규 모집

전주시가 고물가시대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착한업소'를 찾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경기참체 및 고물가 지속에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전주시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업 등 생활밀접업종 중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의미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다.

시는 올해 11개 착한가격업소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주시 내 의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

을 운영하는 업소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를 체납한 업소 △가맹사업자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민생사회적경제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13층)로 방문 접수하거나, FAX(063-281-6456) 또는 전자우편(kang1101@korea.kr)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가격·위생 등 평가 기준에 따라 현지 실사평가를 통해 선정 여부를 심사한 후, 오는 8월 중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종량제봉투·지역화폐 등 맞춤형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이만호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